

결과표현의 유형*

와시오 류이치(鷲尾龍一)

1. 사건과 결과의 표현

“말이 통나무를 끌었다”라는 사건(E_1)이 원인으로 “통나무가 반들반들하게 되었다”라는 결과(E_2)가 생겼다고 가정하자. 이 인과관계를 언어로 나타낼 경우,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Carrier and Randall (1992)).

(1)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1)의 의미에는 “사역”(E₁ CAUSE E₂)의 요소가 들어 있을 것이지만, (1)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단어를 보아도, 사역(CAUSE)이나 상태변화(BECOME)라는 개념을 함유한 것은 없다. 특히, 동사 drag는 “변화”를 함의한 동사가 아니고, 다음과 같은 통상의 타동사 용법에서, 단지 “행위”를 나타냄에 지나지 않는다.

* 본고는, 결과표현에 관한 필자의 생각(1996, 1997a)을 요약하여,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에 약간의 고찰을 더한 것이다. 한국어에 관한 보다 세밀한 고찰은, 현재 집필중인 논문에서 제시될 것이다.

본고의 집필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와의 토론 및 동 교수로부터 받은 상세한 논평과 조언은 더없이 유익하였다. 이정민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츠쿠바대학(筑波大學) 대학원의 김영민 씨는, 한국어 모국어화자로서 조사에 협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고의 내용에 관해서 실질적인 조언도 주었다. 김영민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 “어학연구”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상세한 논평은 본고를 개정할 때의 귀중한 지침이 되었다. 심사위원 제현계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본 연구는, COE Project “Researching and Verifying an Advanced Theory of Human Language: Explanation of the human faculty for constructing and computing sentence structures on the basis of lexical conceptual features”(연구거점: 간다외어대학(神田外語大學) 대학원, 연구대표: 이노우에 카즈코(井上和子))의 일원으로서 필자가 실시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이며,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동 프로젝트에 대하여 교부되고 있는 연구조성금(08CE1001)의 조성을 받고 있다.

(2) The horses dragged the logs.

따라서, drag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추상적으로는 (3b)와 같이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단, V_{ACT}는 “행위동사”가 공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3) a. NP₁ V NP₂
 b. [x V_{ACT} y]

한편, (2)의 문말에 smooth 등의 형용사구(AP)가 나타나면, 범주연쇄로서는 (3a)가 (4a)로 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drag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전체의 의미는 (3b)에서 (4b)로 극적으로 변화한다(“z”는 AP에 대응하는 상태).

- (4) a. NP₁ V NP₂ AP
 b. [[x V_{ACT} y] CAUSE [y BECOME z]]

그러므로, (1)과 같은 결과표현의 분석에서는, 그 의미표시에 출현하는 CAUSE나 BECOME 등의 의미요소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를 단순히 “합성”(compose)해도 사역이나 변화라는 개념을 함유한 문장 전체의 의미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제안되고 있다.¹ 이론적인 취급도 그렇지만, (1)과 비슷한 결과표현은 다음과 같은 경험적인 문제도 제기한다. 즉, 영어 이외의 언어에 눈을 돌리면, 이 종류의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도 존재한다고 하는 “언어간의 차이”의 문제이다.

2. 언어간의 차이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전절 서두에서 말한 인과관계를 언어로 나타낼 경우, 예컨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5) 말이 통나무를 끌어서 (통나무가) 반들반들하게 되었다.
 (6) uma-ga maruta-o hikizut-te (maruta-ga) subesube-ni nat-ta.
 (= (5))

¹ McCawley (1971), Green (1973), Carrier and Randall (1992), Napoli (1992), Randall (1982), Simpson (1983), Goldberg (1995),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 Washio (1997a) 등을 참조. 한국어에서의 결과구문을 논한 연구에는 김중복(1993)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되고 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겠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전하기 위해서, 영어 (4a)에 대응하는 (7)과 같은 문장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 (7) NP₁ NP₂ AP V (AP=Adjective-type Phrase)
- (8) *말이 통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끌었다.
- (9) *uma-ga maruta-o subesube-ni hikizut-ta.(=(8))

(1)과 같은 결과표현이 가능한 언어와 불가능한 언어의 차이는 어떠한 접근방식으로든 설명되지 않으면 안되고, 임의의 언어가 이런 종류의 표현을 허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그 언어가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성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결과표현에 관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어순의 차이 등에 연관시키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1)과 같은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S-O-V라고 하는 어순을 갖고 있는 언어의 특성도 아니고 아시아어적 특징도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어도 다음과 같은 예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한국어와 같다.

- (10) *Les chevaux ont trainé les rondins lisses.(=(1))

영어에서는 허용되는 (11)과 같은 예도 프랑스어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12)참조).

- (11)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 (12) *Jean a martelé le métal plat.(=(11))

다른 로망스제어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얘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11)에 대응하는 문장은, 이탈리아어(cf. Napoli(1992))에서도 스페인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13) *Gianni ha martellato il metallo piatto.(=(11))
- (14) *Juan martilleó el metal plano.(=(11))

프랑스어는, 어순에 있어서는 영어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표현에 관해서는 한국어와 같은 유형에 속하므로, 결과표현을 둘러싼 언어간의 차이를, 어순 문제로 환원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간 차이의 문제는, 여기에서 “유형 문제”라고 하는 경험적인 문제에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4a)와 같은 형식을 가진 문장은, (1) 이외에도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16)이나 (17)과 같은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15)(=(1))와 동일해 보인다.

- (15)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1))

(16) I painted the wall red.

(17) He tied his shoelaces tight.

그러나, 제 언어에서의 허용도를 조사해 보면, (15), (16), (17)에는 명백한 상이점이 관찰된다. (16)에 대응하는 (18)과 같은 표현은,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에서도 빈번하게 보이지만, 프랑스어는 이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cf. Green (1973)).

(18) 나는 벽을 빨강계 칠했다.

(19) boku-wa kabe-o akaku nut-ta.(=(18))

(20) *J'ai peint le mur rouge.(=(18))

이것에 대해, (17)에 대응하는 표현은 프랑스어에서도 가능하고, 물론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도 가능하다.

(21) 나는 구두끈을 단단하게 매었다.

(22) boku-wa kutu-no himo-o kataku musun-da.(=(21))

(23) J'ai noué les lacets de mes chaussures bien serré.(=(21))

따라서,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일본어)라는 세 유형의 언어에 보이는 대립은, 특정의 문형식이 허용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관계를 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한 차이이다.²

²대충 말하면 결과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요소가 포함된다. 그 하나는 “상태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사건의 존재, 즉 “사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미요소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 문장(=(8))은 이 “사동”의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i) *말이 통나무를 반들반들하게 끌었다.

이 사실은, “계”와 사동법에 관한 서정수(1990)의 이론에서는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다. 서정수(1990: 358/366)의 분석에 의하면, “‘계’는 사동 동사 ‘하다/만들다’와 융합하여 장형 사동법을 이루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며, 거듭 “계”가 이런 사동문을 구성하는 데는, “계”의 후행 구절이 “하다/만들다”에 국한된다는 제약뿐만 아니라 “‘계’의 선행 용언은 [동사성]의 특질을 지닌 용언이랴 한다는” 제약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관점에서 (i)의 문장을 보면, 이 두 가지 제약이 어느 하나도 충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곧 동사 “끌다”는 사동 동사가 아니고 “계”의 선행용언인 “반들반들하다”는 [동사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서정수(1990)의 이론에서는 (i)와 같은 문장이 사동의 의미관계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계”가 사동문 이외의 구문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서정수(1990)에서 이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계’ 선행용언이 [비동사성]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의 선행용언이 [동사성]을 지니기는 하나 뒤따르는 용언

3. 결과표현의 유형

전절에서 든 여러 가지 예문은 다 (24)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24) NP₁-V-NP₂-AP(또는 NP₁-NP₂-AP-V)

그러나 제 언어간의 비교로, 이것들이 적어도 다음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다.

- (25) a. 영어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어·일본어, 프랑스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문장(e.g., (15))
 b. 영어, 한국어·일본어에서는 허용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문장(e.g., (16))
 c. 영어, 한국어·일본어, 프랑스어, 어느 언어에서도 허용되는 문장(e.g., (17))

이들 세 유형은, 졸고(1997a)에서 제안한 결과표현의 세 가지 분류, 즉 STRONG, WEAK, SPURIOUS라는 세 유형에 대응하는 것이며, 각각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Strong Resultatives(이하 “STRONG”으로 약기)란, (24)에 든 구조에서 AP의 의미 내용을 동사의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AP가 동사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유형이다. (15)의 drag는, “끌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이 의미에서 “반들반들하다”라고 하는 AP의 의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5)에서 smooth는 drag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15)는 “STRONG”으로 인정된다. 같은 이유로 다음 (26a)도 STRONG으로 간주된다.

- (26) a. She pinched her cheek red.
 b. *그 여자는 볼을 빨갱게 꼬집었다.

Weak Resultatives(이하 “WEAK”라고 약기)에서, AP는 동사 의미로부

이 사동 동사가 아닌 경우이다”(p. 354). 전자의 경우, “게” 선행용언은 “부사절” 또는 “보문”을 구성하고, 기능적으로는 “동사구절을 수식하는 구실을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p. 35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i) 그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서정수(1990: 354))

이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게” 선행용언이 [비동사성]인 앞의 (i)는 “반들반들하게”가 “끌었다”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과 합치한다. 서정수(1990)에서의 분석에 관해서는 뒤에 서 다시 논의하겠다.

터 완전히는 독립해 있지 않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WEAK를 구성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상태변화” 동사인 것이다.

(27) a. He *sharpened* the pencil *pointy*.

b. She *cleaned* the porch *spotless*.(Randall(1982))

상태변화 동사이므로, *sharpen*이나 *clean*의 의미에는 이미 “뽀족해지다”/“깨끗하게 되다”라고 하는 특정한 변화가 함유되어 있으며, (27)의 *pointy/spotless*는, 동사가 이미 함의하고 있는 결과 상태를 더욱더 특정화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것은, 동사 의미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정보를 첨가한다고 하는, STRONG에서의 AP의 기능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앞의 (26b)의 동사 “pinch/꼬집다”가 상태변화를 함의하지 않음에 대하여, “paint/칠하다”와 같은 동사는, 그 행위 대상의 표면 상태가 “색” 등에 관해서 변화한다는 함의를 수반하기 때문에, (26b)의 “pinch/꼬집다”를 “paint/칠하다”로 바꾸어 놓은 문장(“She painted her cheek red”/“그 여자는 볼을 빨갱게 칠했다”)은 WEAK로 인정된다.

그러나, WEAK를 구성하는 동사가 반드시 특정한 상태변화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wipe*라는 동사는 (책상 등을) “닦다”라는 의미의 행위동사이며, 닦은 결과인 상태까지는 함의하지 않는다(cf.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1)). 따라서 (28)과 같은 예는, 동사 의미에는 함유되지 않는 정보를 형용사가 제공하고 있는 STRONG 부류와 같아 보이지만,

(28) She *wiped* the table {*clean/dry*}.

실제로는, x *wipe* y 는 “변화 방향성”까지는 함의하고 있어, 가령 y 의 상태가 변화하면, 그것은 y 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함의가 있다.³ 따라서, *clean*이나 *dry* 등, 이물이 제거된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wipe*와 공기할 수 있지만, *dirty*나 *wet* 등, 이물이 “부착”된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wipe*와는 공기할 수 없다.

(29) * She *wiped* the table {*dirty/wet*}.

다시 말하면, (28)에서 형용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동사 의미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정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사가 함의하는 변화 방향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정보이므로, 이것은 WEAK로 분류된다.

Spurious Resultatives(이하 “SPURIOUS”라고 약기)는 엄밀히 말하면 결과 표현은 아니다. 예컨대 (17)의 형용사 *tight*는, 구두 끈을 맨다고 하는 행위

³ 졸고(1997b)에는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있다.

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차라리 “매는 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어에서,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놓아도 거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30)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30) He tied his shoelaces {tight/tightly}.

프랑스어에서, (23)의 형용사 serré (=tight)가 목적어와 수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부사적 자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 위에, (30)의 tight/tightly를, 반대 의미를 가지는 loose/loosely로 바꿔 놓아도 문장의 적격성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도 WEAK하고는 다른 점이다. loose를 사용하는 경우, “He caused his shoelaces to become loose by tying them”라고 하는 사역 구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분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자동사” 결과구문(엄밀히 말하면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에 의거한 결과구문)은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까?

(31) They ran their shoes threadbare.

이 경우, run은 자동사이므로, their shoes는 run이 의미적으로 요구하는 명사구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threadbare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정보가 run이라는 동사의 의미에 함유되어 있을 리가 없으므로, 형용사 threadbare는 동사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동사 결과구문은 STRONG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15)나 (26a)와 같은 타동사에 의거한 STRONG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자동사 결과구문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예측이 성립되는데, 이것은 옳은 예측이다. 예컨대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에서는, 모빌의 선전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실려 있다.

(32) Drive your engine clean.

이 경우 drive는 자동사이며, (모빌을 사용하면)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엔진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효과를 전하려는 문장이지만, 이같은 표현은,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어느 언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33) *엔진을 깨끗하게 드라이브합시다.

(34) *enzin-o kirei-ni doraibusi-masyoo.(=(33))

(35) *Conduisez votre moteur net.(=(33))

자동사결과구문이 STRONG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체로 STRONG을 허용하지 않는 이 언어들에서, (33)~(35)가 부적격인 것은 당연한 것

이다.⁴

이상과 같은 고찰로부터, 결과구문에 대해서 영어를 한국어나 프랑스어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은, (A) 타동사 결과구문의 일부분 ((15), (26a))과 (B) 모든 자동사 결과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와 (B)가 한 자연류(natural class)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은, 타동사·자동사라는 동사의 유형만을 가정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위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타동사는,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상태변화의 “정도”에 따라 몇 유형으로 분류된다. (A)에 든 drag 등은, 그 중의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타입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run 등의 자동사에도 공통된 성질이다. 타동사의 일부와 모든 자동사를 포괄하는 이와 같은 동사 유형을 가정하고서야 비로소, STRONG을 자연류로서 규정할 수가 있다. 타동사와 자동사를 횡단하는 이런 종류의 유형은, 다른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경

⁴ 자동사 결과구문의 예를 다시 들면 다음과 같다. 너무 걸어 다리 근육이 단단하게 된 경우, 영어에서는 다음 (i a)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쓸 수가 있지만, 이에 대응되는 (i b) 등의 문장은 프랑스어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 (i) a. He walked his legs off/stiff.
- b. * Il a marché les jambes raides.
- c. Il a marché jusqu'à en avoir les jambes raides.
 'He walked to the point of having stiff legs.'

(i a)를 프랑스어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i c)와 같은 전혀 다른 구문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 36-37)가 자동사 결과구문의 실례로서 들고 있는 다음의 (ii a)는, 모친의 잠이 배 속의 아기를 조용하게 한다고 하는 인과 관계를 나타낸 문장이거나, 이를 프랑스어로 직역해 보아도 (ii b)와 같이 비문이 될 뿐이다.

- (ii) a. You may sleep it quiet again... [*it*=the unborn baby]
- b. * Vous pouvez le dormir tranquille. [*le*=the unborn baby]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랑스어에서도 “travailler la tête nue”(=to work bare-headed), “marcher pieds nus”(=to walk barefoot) 등, 자동사에 “NP-AP”라는 연쇄가 후속하는 구문 자체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depictive”이며, 자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발생했다는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 예컨대 “marcher pieds nus”는 “맨발로 걸다”라는 의미이며 결과표현으로서는 해석될 수 없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사 결과구문에 관해서는, 한국어는 프랑스어와 유사한 성질을 보이며 영어와 대립한다. 앞의 (i a)를 직역한 “그는 다리를 단단하게 걸었다”를 결과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문 (37a, b)와 같은 예들에서도 이것이 한국어의 일반적인 성질임을 알 수가 있다.

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제5절 참조).⁵

4. 자동사 결과구문과 한국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STRONG인 결과구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에 의거한 결과구문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8)과 (26b) 또는 다음과 같은 예가 타동사에 의거한 STRONG인 결과구문의 부적격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 (36) a. * 그는 쇠를 번쩍번쩍하게 찼다(두드렸다).
 b. * 그는 쇠를 부드럽게 찼다(두드렸다).

(33)과 다음과 같은 예가 자동사에 의거한 결과구문의 부적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 (37) a. * 그들은 구두를 얇게 달렸다.
 b. * 관광객들이 길을 평평하게 걸었다.

위의 (36b)는, “부드럽게”가 행위의 양태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물론 적격하다. 그 경우, (36b)는 SPURIOUS로 간주된다.

일본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이며, (36)~(37)에 대응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전혀 적격하지 않다(한국어 (36b)와 같이 (38b)도, 양태의 해석으

⁵ STRONG과 WEAK의 구별에 관해서는, Adele Goldberg 교수로부터의 사신(1997년 9월)에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관찰이 보인다. Goldberg (1995: 193-196)에서는, (A) 영어 결과구문의 주어는 “유정의 사동자(Animate Instigator)”이지 않으면 안되고, (B) 결과구문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일정한 척도(scale)의 최종지점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End-of-Scale Constraint”에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 (A)에 의하여 (ia)와 같은 문장이 배제되고 제약 (B)에 의하여 (ib)와 같은 문장의 부적격성이 설명된다.

- (i) a. * *The feather tickled her silly.* (주어 ≠ animate)
 b. * *The bear growled us afraid.* (형용사 ≠ end-of-scale)

이들 제약을 어긴 문장은 일반적으로 부적격하게 되지만, Goldberg (1995)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결과표현에서는 이들 제약의 영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i) a. *Water filled the tub full.* (주어 ≠ animate)
 b. *He painted his house light pink.* (형용사 ≠ end-of-scale)

사신에서의 Goldberg 교수의 지적이란, 요컨대 이러한 제약 약화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본고에서 말하는 WEAK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찰이 옳다면, STRONG과 WEAK의 구별은 새로운 독립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된다.

로는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38) a. *kare-wa kinzoku-o pikapika-ni tatai-ta.(=(36a))
 b. *kare-wa kinzoku-o yawarakaku tatai-ta.(=(36b))
 (39) a. *karera-wa kutu-o usuku hasit-ta.(=(37a))
 b. *ryokoosya-tati-ga miti-o taira-ni arui-ta.(=(37b))

이것들에 대응하는 예는, 영어에서는 물론 적격하다 ((40)에 관해서는 McCawley (1971)를 참조).

- (40) a. He pounded the metal shiny.
 b. He pounded the metal soft.
 (41) a. They ran their shoes threadbare.
 b. The tourists walked the pavement thin.

따라서, 영어와 달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구문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다.

- (42) NP_{NOM} NP_{ACC} AP V_{UNERG}

지금까지의 논의는 필자의 입장(주로 1997a)을 요약한 것이지만, 김종복 (1993)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 보인다. 한국어 결과표현을 영어와 비교한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한국어에도 비능격 결과구문(unergative resultatives)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3) a. 그는 그 손수건이 젖게 울었다.
 b. 그는 (그의) 신발이 닳도록 달렸다.

이들 예에 관한 김종복 (1993)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집약된다.

[I] 우선 의미에 관하여, (43)은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영어 구문과 비교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주장이 있다.

- (44) a. He cried the handkerchief soggy.
 b. He ran his shoes threadbare.

[II] 형식면에서, (43)은 다음 (45a)와 같은 단순한 타동사 구문이 아니고, (45b)와 같은 내포문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 (45) a. NP₁ NP₂ XP- $\left\{ \begin{matrix} \text{key} \\ \text{tolok} \end{matrix} \right\}$ V_{UNERG}
 b. NP₁ [_S NP₂ XP- $\left\{ \begin{matrix} \text{key} \\ \text{tolok} \end{matrix} \right\}$] V_{UNERG}

이것은 서정수(1990)나 장석진(1996: 163-164) 등에서의 기술의 관점과도 부합되는 분석이며,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영어에서는, (44)와 같은 문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것을 단순한 S-V-O-C의 구문(cf. (46a))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소위 “small clause”를 가정하는 분석(cf. (46b))이 병존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43)에 대하여 내포문을 가정할 만한 강한 근거가 있다. 한국어에 관한 이러한 관찰은 영어(44)에 대해서도 (46b)와 같은 내포문 구조를 가정하는 증거가 된다——이것이 김종복(1993)에서의 제삼의 논점이다.

- (46) a. NP₁ V NP₂ AP
 b. NP₁ V [_{sc} NP₂ AP]

[Ⅳ] 네째,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46)의 NP₂ 위치를 채워 대명사가 차지하는 이른바 “fake reflexive”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김종복(1993)은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다음 (47a)와 같은 문장의 부정격성이다.

- (47) a. *그는 자기가 미치게 노래하였다.
 b. He sang himself crazy.

이상이 비능격 결과구문에 관한 김종복(1993)의 주요한 주장이다. 이것들 중에서, [Ⅱ]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나머지 세 논점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과구문”의 분석과는 (적어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43a)나 (43b)와 같은 문장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영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8) He ran until his shoes wore out.

그러나, 이것을 결과 “구문”이라고 불러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48)은, 단순한 자동사문(He ran)이 부사절(until his shoes wore out)을 수반하고 있을 뿐인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과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 (49) He ran until the day broke.

(48)과 (49)의 부사절에 공통되는 것은, 모문의 행위가 종결된 시점을 “until...”에 의하여 한정한다고 하는 의미기능이며, 그 한정 방법, 화용론적 허용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

다. 이에 대하여, (44b)와 같은 “진정”한 결과구문은, “NP₁의 행위가 NP₂에 작용한 결과, NP₂가 특정의 상태변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상황밖에 기술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위 (49)을 S-V-O-C의 형식으로 표현해도, 다음과 같이 전혀 부적격한 문장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50) * He ran the day broken.

다음과 같은 예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43b)는 영어 “until”구문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며, NP₁의 행위가 NP₂에 작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도, 자유로이 기술할 수 있다.

(51) 그는 밤이 새도록 달렸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이런 종류의 구문이, 영어 (44)와 비교될 것이라고 하는 상기 [I]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상기 [III]의 논의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즉, 한국어(43)과 영어(44)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문이기 때문에, 전자가 내포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자도 그렇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 (48)/(49)을 근거로 하여 (44)의 구조를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위에서는, 논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태소 “도록”을 함유하는 (43b)를 예로 들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형태소 “게”를 함유하는 (43a)와 같은 예는, “게”의 의미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논의가 약간 더 복잡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43b)의 경우와 같이 (43a)의 기술범위도, “NP₁의 행위가 NP₂에 작용한 결과, NP₂가 특정한 상태변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서는 “fake reflexive”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기 [IV]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이 주장의 근거는 (47a)와 같은 문장의 부적격성이었다.

(47) a. * 그는 자기가 미치게 노래하였다.

b. He sang himself crazy.

통사적으로 보면, (47a)는 “NP₁ [_{sc} NP₂ AP] V”라는 (46b)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문제는 (47a)의 부적격성이 무엇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순수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47a)는 단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즉, 재귀 대명사 “자기”는 “...[_{sc} NP₂ 미치게]...”와 같은 내포문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는 일반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기”는 일반적으로 내포문 주어

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일반화는, 만약 사실이라면, 극히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일반화는, 결과구문 자체의 분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재귀 대명사 “자기”는, 결과표현이 아닌 다음과 같은 문장의 내포문 주어 위치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52) a. 나는 죽도록 그 여자를 사랑했다.

b. *나는 자기가 죽도록 그 여자를 사랑했다.

(52a)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결과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문 주어로서 “자기”를 표시할 수가 없다. 만약 “자기”가 내포문 주어 위치에서 배제되는 것이 결과표현의 경우에 국한된 현상이라면, 김종복(1993)의 논의는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김종복(1993)의 관찰 및 (52b)와 같은 많은 예문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영어 “He sang himself crazy”와 같은 문장에 의해 대표되는 “fake reflexive”라는 구문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게”나 “도록”에 선행하는 절의 주어 위치에는 “자기”가 나타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제약을 “결과표현”이라는 개념에 국한시킬 수 없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상, 주로 자동사 결과구문에 대한 김종복(1993)의 주장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여기서 당연히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검토해 온 것과 같은 현상과 앞의 각주 2에서 언급한 서정수(1990)의 논의와의 관련이다. “게”의 기능에 대한 서정수(1990)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3) I) “게”가 사동법으로 쓰인 경우(“게”의 주기능)

II) “게”가 비사동법으로 쓰인 경우(접속 기능)

i) 수식 기능

ii) 도달 관계 접속 기능

“게”가 이렇게 분석되는 것에 대하여, “도록”은 “사동법보다는 일반적인 접속 기능이 그 본령”이며, “게”가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적 단위를 지니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체의 의미로 “도급(到及)”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고 분석하고 있다(서정수(1990: 365-367)). 따라서 비사동의 상황에서 “게”와 “도록”이 교체되는 것은 양자에 공통된 기능이 발휘되는 경우, 즉 위의 (53-II-ii)의 경우이다. 앞에서 본 (51)이나 김종복(1993)의 (43b) 등은 기본적으로 서정수(1990)에서 말하는 도달 관계 접속 기능

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이 기능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에서도 “도급”의 의미를 지닌 특정한 형태소에 의하여 분석적인 방법으로 실현된다(영어 “until”, 프랑스어 “jusqu’à”, 일본어 “made” 등).

서정수(199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53-II-ii)의 도달 관계 접속 기능은 일반적으로 “계”의 선행 용언이 [동사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53-II-i)의 수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계”의 선행 용언이 [비동사성]인 경우에 성립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결과표현은, 한국어의 경우, “계”에 선행하는 위치를 형용사가 차지하고 “계”의 후행 용언이 “하다/만들다”가 아닌 구문이기 때문에,

(54) NP_{NOM} NP_{ACC} AP-key V(V ≠ 하다/만들다)

(53)의 분류를 가정하면, 이들의 결과표현은 일반적으로 (53-II-i)에 포함될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본고에서의 WEAK와 SPURIOUS의 구별은, 서정수(1990)에서의 “수식기능” 자체를 다시 하위분류한 것이며, STRONG이라는 유형은, 서정수(1990)의 분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따라서 부적격으로 되는) 구문으로 볼 수가 있다(앞의 주 2 참조).

(53-II-i)의 수식 기능을 WEAK와 SPURIOUS로 분류하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점에 있다. 하나는 언어에 따른 분포상의 차이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는 이들의 두 표현유형을 구별한다.

(55) WEAK

- a. 나는 벽을 빨강게 칠했다.
- b. *J'ai peint le mur rouge.

(56) SPURIOUS

- a. 나는 구두끈을 단단하게 매었다.
- b. J'ai noué les lacets de mes chaussures bien serré.

다른 하나는, 형용사구의 의미기능에 관한 차이점이다. 서정수(1990)의 분류에 따르면, (55a)와 (56a)는 모두 (53-II-i)에 속하고, 형용사구는 어느쪽이나 전부 동사구를 수식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식” 기능이 있다고 생각된다. (55a)의 경우, “칠하다”라는 행위의 결과, 벽은 빨강게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행위의 “양태”가 아니고, 이 동사가 어휘적으로 함의하는 “대상의 상태변화”(대상의 표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특정”하는 것에 의하여, 행위의 결과, 대상의 표면에 일어난 “상태”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S-O-A-V”라는 형식의 WEAK에 있어서는, S에 의한 행위의 결과 “O가 A게 되다”(O BECOME A)라는 함의가 성립된다. 이와 달리 SPURIOUS인 (56a)에서는,

“단단하게”는 “매다”라는 행위의 “양태”를 수식하고 있으며, (56a)의 “단단하게 매었다”를 “힘을 주어 매었다”로 바꿔 말하더라도 기술되는 사건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끈을 매다”라는 행위의 경우, 힘을 주어 매면 끈(의 매듭)은 상식적으로는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56a)의 경우에도, (55a)에서와 같이 “사동적 상태변화”의 함의가 성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힘을 주어 끈을 매면 매듭은 단단하게 된다”라는 현실세계의 원리를 반영한 “화용론적” 판단이며, (56a)의 형식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관계가 아니다. (56a)의 “단단하다”를 반대어 “느슨하다”로 바꿔 놓아 보면, 이것은 보다 명확해진다.

(57) 나는 구두끈을 느슨하게 매었다.

이 경우, “끈을 매어 느슨하게 했다”(또는 “맨 걸과 느슨하게 되었다”)라는 사동적 상태변화가 함의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로,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들에서는, WEAK에서의 형용사구와 SPURIOUS에서의 “형용사구”가 다른 자격으로 문장 내에 나타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56)에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58) He tied his shoelaces {tight/loose}. (cf. (17), (30))

형용사 (tight/loose)를 부사 (tightly/loosely)로 바꿔 놓아도 거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⁶ 이것은 (58)이, “구두 끈을 매다”라는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매는 법”을 기술하고 있는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설명될 수 있다. “구두 끈을 매다”라는 행위는 행위의 양태(강하게 매느냐 약하게 매느냐)가 결과의 상태(매듭이 단단한가 느슨한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성질이, 형용사와 부사의 교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58)과 달리, 예컨대 “pull”이라는 동사를 사용한 다음 문장은, 동사가 단순한 “행위 동사”이며 문말 형용사가 동사의 의미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류에 따르면, 이는 STRONG으로 인정된다.

(59) He pulled his tie {tight/loose}.

(58)의 경우와는 달리, “넥타이를 (잡아)당기다”라는 행위는, “행위의 양태가 결과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성질은 지니지 않는다. (59)는 “넥타이가

⁶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에서는 형용사가 목적어와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서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단단하도록/느슨하도록 당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기는 것에 의하여 넥타이를 단단하게/느슨하게 했다”(He caused his tie to become tight/loose by pulling it)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 있어서는 힘의 세기가 반드시 결과의 상태(단단한가 느슨한가)에 직결한다고는 할 수 없다(느슨하게 하는 경우에는 넥타이의 매듭에 손가락을 넣어 당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 힘을 주면 줄수록 넥타이는 느슨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59)의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놓을 수 없으며(cf. (60a)), 프랑스어에서는 이 의미를 “S-V-O-AP”라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cf. (60b)).

(60) a. *He pulled his tie {tightly/loosely}.

b. *Jean a tiré sa cravate {serré(e)/lâche}.

SPURIOUS에서의 “형용사와 부사의 교체”나 “형용사에서의 일치 요소의 결여”라는 현상은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교 문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간접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된다.

“계”의 기능에 대한 서정수(1990)의 분류는 한국어의 사실에서 추출된 것이지만, 본고에서의 비교 문법론적인 고찰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서정수(1990)의 분석에 독립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과표현을 둘러싼 이론적·경험적 여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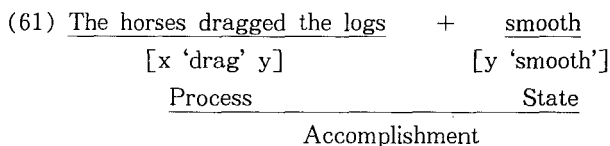
단독으로는 “행위” 밖에 나타내지 않는 동사가 STRONG에 나타나면, 문장 전체로서는 “사역적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사역적 의미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가——이것이 STRONG을 둘러싼 이론적 문제의 중심으로, 문헌에는 여러 가지 제안이 보인다(각주 1 참조).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에서는, STRONG의 의미해석은, 행위, 상태, 달성(accomplishment) 등의 상(aspect) 개념과 “합성(composition)” 조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가설이 제안되었지만, 이 분석은 너무나 보편성이 높으며 매개변인을 설정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표 1에 정리한 것과 같은 언어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⁷

⁷ 프랑스어에서의 WEAK의 성질에 관하여는, Washio (1997a)의 제4절을 참조. 프랑스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언어에는 이탈리아어 등이 있고, 영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언어에는 독일어 등이 있다. 이탈리아어에 관해서는 Napoli (1992)를, 독일어에 관해서는 Oya (1997)나 Okamoto (1996)를 참조.

(표 1)

	STRONG	WEAK	SPURIOUS
영 어	√	√	√
한국어/일본어	*	√	√
프 랑 스 어	*	*/?	√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에 의하면, 예컨대 “The horses dragged the logs”라는 “행위(activity)” 또는 “과정(process)”과 “smooth”라는 “상태(state)”가 합성되면, 전체로서는 “달성(accomplishment)”이 될 수밖에 없어, “달성”은 필연적으로 “사역적 상태변화(causative change of state)”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 첫머리의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라는 문장은,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사역이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를 함유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결과표현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과정”과 “상태”를 합성하면 “달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합성 분석”은, 영어 결과표현의 성질을 PROCESS, STATE, COMPOSITION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에만 의거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분석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즉, 영어 결과표현의 의미가 “과정과 상태의 합성”이라는 보편적인 조작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면, 왜 같은 조작을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프랑스어에 적용할 수 없느냐는 의문이다. 영어와 한·일·불어에 보이는 이 차이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의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보편 원리에만 의거한 설명과 다른 분석으로는, 예컨대 Levin and Rapoport (1988)가 있다. 이 문헌에서는, 단순한 행위동사를 사역적 상태변화동사로 “확장”시키는 어휘규칙이 영어와 같은 언어에는 존재한다는 가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규칙 자체는 단순한 “stipulation” 즉 규정(또는 규약)으로, 본질적으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만, 표 1과 같은 다양성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설명의 어딘가에 미확정치를 남겨 둘 필요가 있

다. 이상적으로는, 각 언어에 갖추어져 있는 독립적인 성질로부터, 어휘적 확장 가능성의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언어의 성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리·비교·유형화하는 작업이 불가결하다. 이런 기초적인 작업은 앞으로 밝혀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⁸

금후의 과제로서는 또한, 대국적으로 보면 같은 유형에 속한 언어들이 어떠한 점에서 다를 수 있는가를 조사한다고 하는 경험적인 문제가 있다.⁹ 한국어와 일본어에 관해서 말하자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 점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NP₁ NP₂ AP V”라는 연쇄에서 “V”가 순수한 자동사인 경우, NP₂를 대격으로 표시하는 것은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62) a. * 그는 다리를 아프게 달렸다.
b. * kare-wa asi-o itaku hasit-ta.

그러나 김종복(1993)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NP₂를 주격으로 표시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가능하다.

- (63) 그는 다리가 아프게 달렸다.¹⁰

이것은 일본어에서는 불가능한 구문으로, (63)을 직역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완전히 부적격하다.

- (64) * kare-wa asi-ga itaku hasit-ta.

한국어와 일본어에 보이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첫째, “NP₁ NP₂ AP V_i”라는 연쇄에는 다음 두 가지 구조를 상정할 수가 있다.

⁸ Kuroda (1988)에서 제안된 “강제적 일치 매개변인”(Forced Agreement Parameter)의 관점에서 프랑스어를 분석한 Washio (1994) 등은, 그러한 시도의 일례이다.

⁹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Baker(1996)에서 말하는 “Micro Parameter”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한편, 본고에서 제안한 결과표현의 유형은, Baker의 용어를 사용하면, “Macro Parameter”의 영역에 속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¹⁰ 다만 (63)과 같은 문장의 적격성에 관해서는 모국어 화자의 판단에 개인차가 보인다. 각주 12를 참조.

- (65) a. [_{SI} NP₁ [_{SZ} NP₂ AP] V_i]
 b. NP₁ [_{SI} NP₂ [AP] V_i]

(65a)는 한국어 (63)과 같은 문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 경우, 자동사 V_i의 주어는 NP₁이며, NP₂와 V_i의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관계도 성립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음 문장이 부적격하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66) *다리가 달렸다.

한편, 다음과 같은 문장은 (65b)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67) 그는 목이 빨강계 부었다.

이 경우, 자동사 “부다”의 주어가 “목”임은 다음 문장이 가능한 것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68) 목이 부었다.

(67)의 “그는”은 자동사 “부다”의 직접적인 논항이 아니고, 문장 전체의 화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일본어에서는 (65a)와 (65b)의 사이에 적격성에 관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들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65a)의 구조를 지니는 (69a)가 부적격한 것에 대하여, (65b)의 구조를 지니는 (70a)는 적격하다.

- (69) a. * [_{SI} kare-wa [_{SZ} me-ga akaku] nai-ta].
 [_{SI} 그는 [_{SZ} 눈이 빨강계] 울었다].
 b. * me-ga nai-ta.(cf. kare-ga nai-ta.)
 * 눈이 울었다.(cf. 그가 울었다.)

- (70) a. kare-wa [_{SI} me-ga [akaku] hare-ta].
 그는 [_{SI} 눈이 [빨강계] 부었다].
 b. me-ga hare-ta.(cf. *kare-ga hare-ta.)
 눈이 부었다.(cf. *그가 부었다.)

그러나, (69a)의 부적격성은, 일본어 형용사가 “절(clause)”을 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는 적지만, “omoe-ru”(생각되다, 생기다, 느껴지다)¹¹ 등의 동사는 형용사를 주요부(head)로 하는 내포문과 공기하여

¹¹ “omoe-”라는 동사는, “omow-”(생각하다)라는 어간에 자발의 의미를 갖는 “-e”가 부가된 것이지만, “omow-e”와 같은 연쇄에서는 “w”가 탈락되고 “omoe-”로 발음된다.

적격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 (71) [_{S1} boku-ni-wa [_{S2} kanozyo-ga kawaiku] omoe-ru].
 [_{S1} 나에게는 [_{S2} 그녀가 귀엽게] 느껴진다].

이런 유형의 문장에서 내포문의 구실은 동사의 의미를 완결시키는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71)의 내포문은 모문 동사(omoe-ru)에 의하여 요구되어, 모문 동사와 의미 관계를 맺는 것에 의하여 인가되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71)에서의 S₂는 모문 동사의 “보문(complemen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9a)에서는, 모문 동사(naku=올다)가 요구하는 보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포문 S₂는 순수한 “부가부(adjunct)”로서 문장 중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가부라 하더라도 문장 내에서 무엇인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보문과 다르지 않다. 단순한 예를 들면, 내재적 부사 표현인 “kokoro-kara/진심으로”와 같은 표현은 부가부로서 (72a)와 같은 문장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부가부는 감정 표출 동사인 “kansya-suru/감사하다”를 수식하므로써 문장 내에서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72b)와 같은 문장에서는, 동사 “sin-u/죽다”와 의미적 정합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수식관계를 맺을 수 없어, 문장 내에서 아무런 인가도 받을 수가 없다.

- (72) a. Chelswu-ga kokoro-kara kansya-sita.
 철수가 진심으로 감사했다.
 b. *Chelswu-ga kokoro-kara sin-de ita.
 * 철수가 진심으로 죽어 있었다.

위의 (69a)가 부적격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일본어에는 “[_{S2} NP-ga Adj-ku]”라는 형식의 내포문을 인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유일한 방법이란 즉 모문의 술어의 의미를 보완하는 “보문”으로서, 술어 자체가 그를 요구·선택한다는 (71)에 보이는 바와 같은 방법이다. 따라서, (69a)는 S₂가 인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될 것이다(단 아래 (73) 참조). 이는, (69a)를 제시받은 모국어 화자들이 S₂의 의미적인 구실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과도 합치되는 분석이다.

일본어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분석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면, (69a)가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일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술부가 형용사인 “부가절(adjunct clause)”을 인가하는 어떤 기제가 존재하여, (69a)에서의

S₂의 의미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기제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는 금후 밝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일어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형태소 “게”와 일본어 형태소 “ku”의 어휘적인 차이에 환원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특히 검토할 만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게”가 동사에도 형용사에도 접속하는 형태임에 비해서 일본어 “ku”는 형용사에 고유한 형태이다. 이 형태소는 전통적으로 형용사의 활용어미로 분석되어 온 것이며, 그 기능은 이른바 “연용형의 형성”이라는 오로지 형식적인 것이다. “[_{S2} NP-ga Adj-ku]”라는 절이 다른 술어와 관계없이 쓰인 경우, 그것은 단지 문장이 완결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전달 뿐이다. 이러한 막연한 정보로만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등접속의 경우뿐일 것이다.

(73) me-ga aka-ku mimi-ga nagai.

(눈이 빨강고 귀가 길다.)

따라서, (69a)와 같은 문장을 보아 모국어 화자가 알 수 있는 것은, S₂의 문장이 완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며, 그 이상 구체적인 의미를 S₂에 줄 수가 없다.

(69a) * [_{S1} kare-wa [_{S2} me-ga aka-ku] nai-ta].

[_{S1} 그는 [_{S2} 눈이 빨강게] 울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 이러한 내포문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를 선택하는 술어가 모문에 존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한국어 형태소 “게”에는, 서정수(1990)에서 말하는 “접속기능”이 있기 때문에, “[_{S2} NP-ga Adj-key]”라는 내포문이 부가절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도, 문장 내에서의 S₂의 의미적인 구실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형용사가 절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70a)와 같은 경우, 연용형 “[Adj-ku]”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에 의하여 인가된다. 다만 형용사에는, “상태”를 수식하는 것과 “양태”를 수식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성질에 의해서 동사의 종류가 제한된다. “aka-i/aka-ku(빨강다/빨강게)”는 상태수식의 형용사이므로, 그것이 수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hare-ru(붓다)” 등의 상태변화동사에 국한된다.¹²

¹² 이상, 자동사와 형용사구 또는 형용사절과의 공기 가능성에 관해서 약간의 한·일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표면적인 범주 연쇄로서는 동일한 다음 (i a, b)와 같은 문장은, 그 내부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러므로 이들 문장의 인가에도 다른 두 가지 방식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S O A V”라는 구문에 관해서 한·일어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차이도 있다.

- (74) a. 그는 옷을 두껍게 입었다.
 b. ??kare-wa huku-o atu-ku ki-ta.
 (75) a. 그는 옷을 얇게 입었다.
 b. ??kare-wa huku-o usu-ku ki-ta.

(74a)나 (75a)와 같은 예는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이들은 일본어에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74a)/(75a)의 의미를 일본어에서 표현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76)과 같은 복합명사 구문을 쓴다.

- (i) a. 그는 눈이 빨강게 올었다.
 [_{SI} NP [_{SZ} NP Adj-key] V_i] (cf. (69a))
 b. 그는 눈이 빨강게 부었다.
 NP [_{SI} NP [Adj-key] V_i] (cf. (70a))

(i b)는 단순한 수식구조이므로, 이것에 대응되는 문장은 한국어에서도 일본어에서도 허용된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_{SZ} NP Adj-ku]”라는 형식의 “부가절”을 의미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가능한 (i a)가 일본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즉, 일본어에 보이는 (i a)와 (i b) 사이의 경계선이——약한 효과밖에 보이지 않지만——한국어에서도 관찰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필자가 아는 한, (i b)와 같은 문장이 적격하다는 점에서 모국어 화자들의 판단은 완전히 일치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 a)와 같은 문장에 관해서는 모국어 화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개인차가 보인다. 예컨대 츠쿠바대학 대학원 재적생 7명 중, 2명이 (i a)를 적격으로 판단하고, 2명이 부적격으로 판단하였다. 남은 3명의 판단은, 부자연스럽지만 부적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김영민 씨가 하여 준 조사에 의한다). 이러한 종류의 개인차는 (i a)의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며, (i b)와 같은 단순 수식 구문이나 다음과 같이 “계”가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구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 (ii) 그는 목이 쉬게 외쳤다.
 [_{SI} NP [_{SZ} NP V-key] V_i]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에서도 (i a)와 (i b)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상적인 한국어 문법에서는, (i a)를 허용하는 화자와 허용하지 않는 화자와의 차이도 당연히 설명되어야 한다.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개인차는, 개개의 화자의 문법에서 “계”의 의미 (또는 기능)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i a)를 허용하지 않는 화자에 있어서는 “계”의 의미·기능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상태를 나타낼 뿐인 내포문에 “계”가 접속한 경우, 일본어와 같은 효과가 생겨나 (i a)와 같은 문장에서의 내포문의 의미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76) a. kare-wa [_N atu-gi](-o) si-ta.
 (* 그는 [두꺼운 입음](을) 했다.)
 b. kare-wa [_N usu-gi](-o) si-ta.
 (* 그는 [얇은 입음](을) 했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복합명사 형성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74a)/(75a)와 같은 형식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일본어에는 이미 (76)의 방식이 존재하므로 (74b)/(75b)가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사고 방식이 성립한다. (74b)/(75b)와 (76)으로 구성되는 현상을 일종의 “blocking”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설명 방식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이를 엄밀한 설명원리로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합명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 O A V”의 형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77) a. kare-wa tamago-o atu-ku yai-ta.
 (그는 달걀을 두툼하게 부쳤다.)
 b. kare-wa tamago-o [、 atu-yaki]-ni si-ta.
 (* 그는 달걀을 [두툼한 부침]으로 했다.)
 (78) a. kare-wa haya-ku ne-ru.
 (그는 일찍 잔다.)
 b. kare-wa [、 haya-ne]-o su-ru.
 (* 그는 [이른 잠]을 한다.)

따라서, (74b)/(75b)가 일본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현시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도 금후의 과제로서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비교문법론적인 고찰은, 종래의 연구에서는 설정조차 하지 않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므로, 그런 문제의 예를 하나 들어서 본고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 말하는 “Strong Resultative”는, 타동사 결과구문의 일부와 모든 자동사 결과구문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추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9)

타동사 결과구문	WEAK
자동사 결과구문	STRONG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타동사 구문의 일부와 자동사 구문 전부가 한 자연류를 구성한다는 이러한 현상이 결과구문 이외의 영역에서도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능한 피동구문의 유형에 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조직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80) a. Chelswu-ga Yenghuy-ni torae-rare-ta.

b. 철수가 영희에게 잡혔다.

(81) a. Chelswu-ga Yenghuy-ni kami-o kir-are-ta.

b. 철수가 영희에게 머리를 깎았다.

타동사에 의거한 (80)이나 (81)과 같은 피동구문은 한·일 양언어에서 가능하다. 일본어에서는 다시 자동사에 의거한 (82)와 같은 구문이 허용되지만,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하다.¹⁴

(82) a. Chelswu-ga Yenghuy-ni nak-are-ta.

b. *철수가 영희에게 울렸다.

이러한 차이만을 보고 있으면, 한·일어는 자동사 피동구문의 가능성에 관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들 두 언어는, 타동사 피동구문의 일부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81b)에서의 목적어 “머리”는 “철수의 머리”로 해석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이지만, 일본어에는 이 “머리”를 “영희의 머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83) a. Chelswu-ga Yenghuy-ni kami-o kir-are-ta.

b. *철수가 영희에게 머리를 깎았다.(머리=영희의 머리)

따라서, 가능한 피동구문에 관한 한·일어의 차이를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의 구별에 환원시킬 수는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타동사 피동구문의 일부와 모든 자동사 피동구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Washio(1995)에서 말하는 “배제피동(EXCLUSION PASSIVE)”이라는 집합은 바로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배제피동은, (80)나 (81)을 포함하는 “관여피동(INCLUSION PASSIVE)”과 대립되어, 피동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¹³ 보다 상세한 기술 및 이론적인 고찰에 관해서는 Washio (1993, 1995), 김영민 (1997)을 참조.

¹⁴ 황찬호, 이계순, 장석진, 이길록(1988) 등을 참조.

(84)

타동사 피동구문	INCLUSION
자동사 피동구문	EXCLUSION

“배제피동”이 자연류를 구성하는 것은, 예컨대 몽고어의 역사에서, “원조비사”(元朝秘史)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실된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피동문이라고 하는 관찰에서도 알 수가 있다.¹⁵

결과구문에 관해서 영어를 다른 언어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이 “STRONG”인 것과 같이, 피동구문에 관해서는 “EXCLUSION”이 일본어를 다른 언어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개념에는, 타동사 구문의 일부와 자동사 구문 전부를 포괄한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타동사 구문과 자동사 구문을 횡단하는 이러한 유형은, 따라서, 적어도 두개의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만약 이러한 일반화를 보이는 현상이 다른 영역들에서도 관찰된다면, 인간의 언어에서는, (84)나 (79)를 그 특수한 예로서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85)와 같은 유형이 존재해서, 언어간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85)

타동사 구문	α
자동사 구문	β

“타동사” 대 “자동사”라는 고전적인 시점으로는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이러한 유형은, 인간언어라는 체계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문법론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흥미있는 연구과제가 된다.

¹⁵ Washio (1995, Appendix I) 참조. “배제”와 “관여”의 관점으로부터 일본어의 “ni”-피동 (“에게”-피동)과 “ni-yotte”-피동 (“에 의해”-피동)을 분석한 것에 Tanaka (1997)가 있다. 또한 배제·관여의 구별에 의거한 피동구문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에는 김경환(1994)이 있다. 김경환(1994)이 제기한 문제의 몇몇은 Washio (1997b)에서 검토되어 있다.

“원조비사”에서의 피동구문의 성질에 관해서는 Ozawa (1983~1986, 1987~1989), Poppe (1965), Street (1957) 등의 고전적 연구에 보다 자세한 기술이 있다. 한국어에서의 피동구문의 역사적 변화는 권재일(1993, 1994)에서 자세히 분석되고 있다. 한국어의 피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에는 배희임(1988)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권재일 (1993) '한국어 피동법의 역사적 변화,' 언어학 15(성백인 교수 회갑 기념호), 25-41.
- _____ (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김경환 (Kim, Kyunghwan) (1994) 'Adversity and Retained Object Passive Constructions,' *Japanese/Korean Linguistics* 4, 331-346.
- 김영민 (1997) 日韓兩言語の受動態に関する對照研究—間接受身と '被害性(adversity)' の意味を中心に, 修士論文, 筑波大學.
- 김종복 (Kim, Jong-Bok) (1993)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Resultativ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471-482.
- 배희임 (1988) 국어 피동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서정수 (1990) "계'와 '도록'," 국어 문법의 연구 II(증보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장석진 (Chang, Suk-Jin) (1996) *Korea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황찬호, 이계순, 장석진, 이길록 (1988) 한일어 대조 분석, 서울: 명지출판사.
- Baker, Mark (1996) *The Polysynthesis Parameter*,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ier, Jill and Janet Randall (1992) 'The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Resultatives,' *Linguistic Inquiry* 23, 173-234.
- Goldberg, Adel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en, Georgia (1973) 'A Syntactic Syncretism in English and French,' *Issues in Linguistic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uroda, S.-Y. (1988) 'Whether We Agree or Not: a Comparative Syntax of English and Japanes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12, 1-47.
- Levin, Beth and T. Rapoport (1988) 'Lexical Subordination,' *CLS* 24, 275-289.
- Levin, Beth and M. Rappaport Hovav (1991) 'Wiping the Slate Clean,' *Cognition* 41, 123-155.
- _____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MIT Press.

- McCawley, James D. (1971) 'Prelexical Syntax,' Reprinted in J. McCawley, *Grammar and Meaning*, Tokyo: Taishukan (1973).
- Napoli, Donna (1992) 'Secondary Resultative Predicates in It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8, 53-90.
- Okamoto, Junji (岡本順治) (1996) 'ドイツ語における移動様態動詞の特性—結果構文の意味するもの,' 文法と言語理論, 筑波大學・現代語現代文化學系.
- Oya, Toshiaki (大矢俊明) (1997) 'ドイツ語における使役交替と非對格性,' ヴォイスに関する比較言語學的研究, 東京: 三修社.
- Ozawa, Shigeo (小沢重男) (1983~1986) 元朝秘史全釈 (上・中・下), 東京: 風間書房.
- _____ (1987~1989) 元朝秘史全釈続攷 (上・中・下), 東京: 風間書房.
- Poppe, N. (1965) 'The Passive Construction in the Language of the Secret History,' *Ural-Altische Jahrbücher* 36.
- Randall, Janet (1982) 'A Lexical Approach to Causatives,'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2, 77-105.
- Simpson, Jane (1983) 'Resultatives,' in L. Levin, et al., (eds.),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Tanaka, Yuji (田中裕司) (1997) 'On Two Types of Japanese Passives,' *Tsukuba English Studies* 16, 209-245, University of Tsukuba.
- Washio, Ryuichi (鷺尾龍一) (1989~1990) 'The Japanese Passive,' *The Linguistic Review* 6: 227-263.
- _____ (1994) 'Does French Agree or Not?'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18, 377-414.
- _____ (1995) *Interpreting Voice: A Case Study in Lexical Semantics*, Tokyo: Kaitakusha.
- _____ (1996) '語のタイポロジー,' 言語 25(11), 28-35.
- _____ (1997a) 'Resultatives, Compositionality and Language Variatio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 1-49.
- _____ (1997b) '比較文法論の試み,' ヴォイスに関する比較言語學的研究, 東京: 三修社.

ABSTRACT

A Typology of Resultative Expressions

Ryuichi Washio

Expressions of the form NP₁-V-NP₂-AP in English which have been treated uniformly as “Resultatives” in the literature are here divided into three types, on the basis of the different semantic relations they express and their cross-linguistic distribution. They are: (i) STRONG resultatives, in which the meaning of the AP in the above schema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meaning of the verb (e.g.,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where the lexical meaning of the verb does not contain anything like the notion of smoothness), (ii) WEAK resultatives, in which the meaning of the AP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meaning of the verb (e.g., *I froze the ice cream solid*, where the notion of solidness is already contained in the meaning of the verb *to freeze*), and (iii) SPURIOUS resultatives, in which the AP specifies the manner, not the result, of the activity described by the verb (e.g., *He tied his shoelaces tight/loose*) and which, therefore, are not resultative expression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Given these informal definitions, the so-called intransitive resultatives (e.g., *The joggers ran the pavement thin*) are always “Strong,” since the verb here (*run*), being intransitive, cannot contain in its semantics anything like the notion specified by the AP (*thin*).

This trichotomy of resultative-like expressions is strongly motivated by the following cross-linguistic considerations. Thus, while English permits all the three types of expressions just mentioned, languages like Japanese permit only WEAK and SPURIOUS resultatives, and still other languages, such as French, basically permit only SPURIOUS resultatives.

In this paper, we analyze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bove trichotomy, and conclude that it is another example of those languages which permit WEAK and SPURIOUS resultatives, but not STRONG resultatives, including those based on intransitive (or “unergative”) verbs.

Institute of Modern Languag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Tsukuba

1-1-1 Tennodai, Tsukuba, Ibaraki 305, Japan
washio@sakura.cc.tsukuba.ac.jp